



김유민(삼육·1) 최희원(용주·2) 오은서(송원·2) 박수애(동림·2) 김도영(학다리·1)

### 막 오른 호남예술제

23일 광주시민회관에서 열린 광주일보사 주최 제52회 호남예술제 초등부 독창 부문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앙증맞은 모습으로 실력을 뽐내고 있다. 처음으로 국회의장상이 신설된 올해 대회는 음악·국악·무용·미술 등 6개 분야로 나뉘어 두달여 동안 계속된다. <성악 본선 진출자 명단 15명>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기영민(살레시오·2) 손진화(교대부설·2) 김선우(태봉·2) 이유미(선창·2) 손영호(울곡·2)

## ‘두뇌’ 뺏긴 광주

### 인력 지원·연구개발비 투자 척박 ‘당뇨병 권위자’ 전희숙교수 떠나

‘연봉 2억 이상, 연간 연구비 20억원씩 7년간 140억원 지원, 교수급 연구 인력 5명 제공, 그리고 본인이 설계한 ‘맞춤형’ 연구소와 실험실 및 첨단 동물 실험실 제공.’  
조선대 당뇨병연구센터 부소장(시카고대 겸임교수)인 전희숙(여·50) 교수가 제시된 이적 조건이다. 오는 10월 개소를 목표로 인턴 송도테크노파크에 ‘암·당뇨 연구소’를 짓고 있는 가천의대측은 전 교수에게 과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스카우트했다.  
전 교수는 지난 2005년 스승인 고(故) 윤지연 조선대 당뇨병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세계 최초로 인슐린 주사 없이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 논문을 발표, 세계 과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2004년 그녀가 조선대로 온 데는 고 유지원 교수의 뜻과 자

신의 모교가 조선대(약대 출신)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지방대학인 조선대가 당뇨병 정복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세계적 과학자이자 한국의 대표 두뇌인 전 교수의 모교 생활은 2년에 불과했다. 스승인 윤 교수의 갑작스런 죽음과 지역 대학의 열악한 연구 여건이 그녀를 떠나게 했다.  
가천의대는 전 교수에게 과격적인 연구조건을 제시했다. 이걸여 가천길재단 회장은 또 암 성장 억제 단백질 연구 분야 권위자인 미 국립보건원(NIH) 김성진 박사를 영입하면서 백지 수표를 제시했다고 한다.  
문제는 전 교수 같은 최고급 인력의 가치를 조선대 등 지역 대학과 광주·전남 지역사회가 제대로 평가하고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이

다. 특히 지역 사회, 학교, 자치단체 등이 ‘고급 두뇌’를 키워나가겠다는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비전을 제시해 과학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연구개발비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연구 환경도 너무 척박해 연구 능력이 위축될 수 밖에 없어 스스로 보따리를 싸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많다.  
열악한 지원 인프라도 문제다. 조선대의 경우 연구에 필수적인 무균실을 갖춘 동물 실험실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등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보장해주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실험에 사용될 동물을 키우고 관리할 동물 전문가 등의 인력도 없었던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전 교수는 부소장을 맡으면서도 시카고 의대에서 연구를 해왔다.

전 세계적으로 인재 유출을 막고 유치에 총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힘들게 모셔온 인재들이 다시 뺏기는 일이 벌어진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결국 ‘세계 최고’ 당뇨병연구소를 짓겠다고 한 조선대가 2년 늦게 시작한 가천의대보다 앞서가기는 커녕 뒤처지게 된 셈이다.  
조선대 뿐만 아니라 타 대학 사정도 비슷하다. 이 때문에 지역 과학자들은 이번 스카우트를 계기로 ‘지역두뇌’들에 대한 지원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소속 ‘투표 참여 구전 홍보단’이 서구 화정동 주공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오는 25일 재·보궐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4·25 재·보선 D-1

### 투표율 높여라

## 50% 넘으면 1천만원 후원

### 고은건설 소년가장돕기 협약

4·25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율이 유권자들의 무관심으로 역대 최저가 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도시 지역인 광주시의 투표율은 최악의 경우 1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03년 10월 치러진 광주 북구의원 재선거의 투표율은 23.1%, 2002년 8월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율은 23.6%를 기록했으나, 2000년 1월 기초의원 보궐선거 투표율은 15.7%까지 떨어졌었다.  
이에 따라 선관위에 비상이 걸렸

다. 투표율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도 백출하고 있다. 광주시 선관위는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투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안경 및 구두교정권과 MP3 등 기념품을 선물하는 투표 참여 이벤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벤트 참여 희망자는 광주시선관위 홈페이지(http://gj.election.go.kr)에 접속, 신청하게되며, 선관위에서는 재·보선 후 투표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추첨을 통해 선물을 줄 계획이다.  
(주)고은건설은 광주시 남구선관위와 ‘투표율에 따른 소년소녀가장 돕기 후원’ 협약을 체결, 투표율이 50%를 넘으면 1천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남구의회 의

원과 광주시의원 재선거 투표율에 따라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후원금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고은건설은 투표율이 10~30%일때 800만원, 30~50%일 때 900만원, 50% 이상이면 1천만원의 후원 금액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무안군·신안군·나주시·여수시·순천시선관위 등 재·보선이 있는 전남지역 시·군 선관위도 최고령자 투표참여자 남녀 1명씩에게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최다 투표참여 가족에게 10만~20만원 상당의 상품을 각각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선관위는 투표 홍보를 위해 ‘투표 참여 구전홍보단’을 19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한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 “해촉 사유 밝혀라”

### 송재구씨 기자회견

지난 19일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에서 전격 해촉된 송재구씨는 23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촉 사유를 밝힐 것을 정부측에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다. <관련기사 3면>  
송씨는 “위원장에 위촉된 후 6개월 동안 단 한 건의 안전도 심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스스로 위촉한 위원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퇴를 종용하더니 급기야 해촉했다”면서 “(정부는) 조속히 해촉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이어 “위원장으로서 법정 종합계획을 완벽하게 보완하기 위해 위원회 사무국 설치와 콘텐츠 보완, 실무 책임자 교체 등을 요구했다”면서 “이는 위법행위가 아니므로 해촉 사유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씨는 또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완성 위해 ▲문화수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평가 ▲지역의 경제 비전을 제시할 수 방항으로 법정종합계획을 전면 보완 ▲문화전당의 국제적 명소로 건립 ▲유네스코 문화예술아시아센터(가칭) 건립과 같은 국제적인 이목을 끌 수 있는 전략사업 발굴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제2기 조성위 위원장에 위촉됐던 송씨는 지난 19일 중앙인사위로 부터 해촉을 통보받았다. 송씨는 위원장 위촉 이후 문화수도 사업방향을 놓고 주무부처인 문광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유망학원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중학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암동본교 (062)970-0114 ▶ T.(062)970-0001~9

세계로 앞서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 상암동본교 1588-5051 ▶ T.(061)360-5000

**제52회 호남예술제**  
▶ 미술·작문·논술[예선]  
5월1일~5월19일 접수  
▶ 현장예선실기대회  
5월9일까지 접수  
▶ 15월11일, 금호패밀리랜드  
▶ 미술·작문부문 입선제도입  
www.kwangju.co.kr (한글)광주일보  
(062)222-0541·222-8111

光州日報 창사 55 1952-2007

## 우리가 숨쉬는 곳 그곳이 바로 자연입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깨끗한 환경  
주식회사 이화산업 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水)처리제 및 화학약품을 생산하는 기업-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여 365일 당신의 생활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株 式 會 社 二 和 產 業**  
E HWA IND.CO.LTD

- 본사·공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546-13  
TEL:(062)951-3717~9 FAX:(062)951-3720
- 여수공장: (061)686-4877~8
- 대불공장: (061)462-3717~8